

현안과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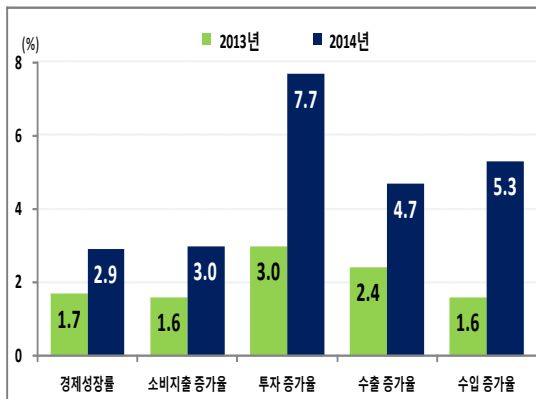
미국 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- 미국 성장률 1%p 상승 시 한국 성장률 0.4%p 상승

1. 미국 경기 회복과 한국 경제

○ 최근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한국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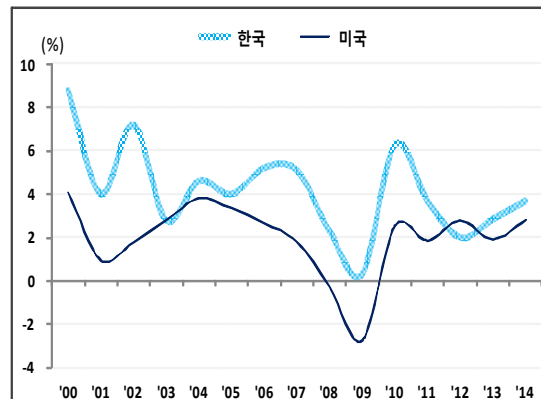
- IMF에 따르면,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1.9%에서 2014년 2.8%로 상승할 전망
 - 미국 경제는 2014년에 민간소비 확대에 따르는 내수 증가와 예산합의에 의한 재정정책 불안감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지속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
 - IMF는 2014년 1월 세계경제 수정전망 발표를 통해 미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작년 10월 발표한 2.6%보다 0.2%p 상향 조정된 2.8%에 이를 것으로 전망
 - 한편 OECD도 미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과 소비, 투자, 수출, 수입 증가율은 2013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
- 미국 경기 회복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 - 한국은 미국의 6대 수입 대상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제2 수출 대상국으로서, 대외 교역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
 -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금융시장이 한국 금융시장에 직·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는 추세
 - 한국 경제성장률은 미국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
- 미국 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살펴본 후, 귀분석을 통해 파급 영향 정도를 알아보하고자 함

<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전망 >



자료 : OECD(2013년 11월).

<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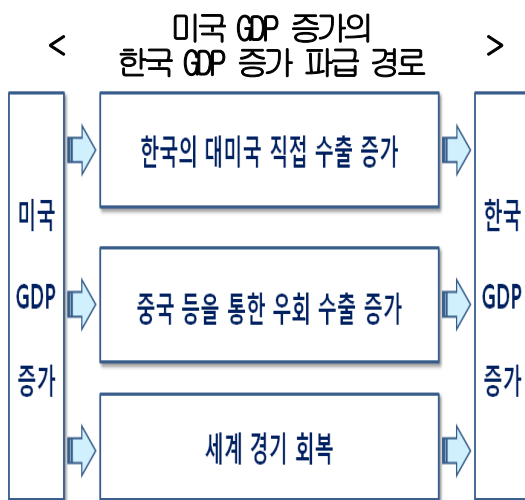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IMF(2013년 10월, 2014년 1월).
주 : 2014년은 전망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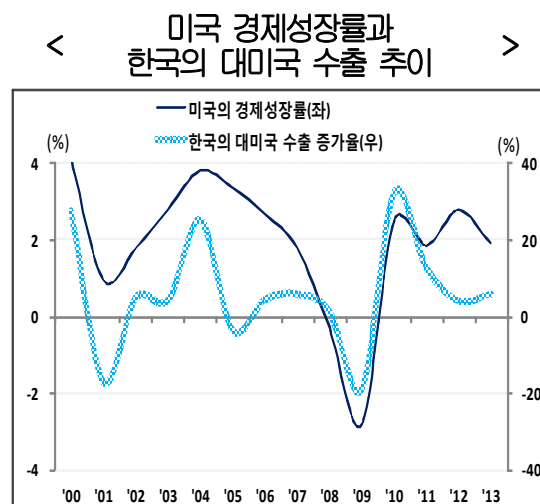
2. 미국 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

■ 파급 경로

-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은 한국의 대미국 직접 수출 경로와 우회 수출 경로, 세계 경기 회복 경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긍정적 영향
- (대미국 직접 수출 경로)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국 직접 수출 증가 예상
- 미국의 소비 및 투자 증가율 상승으로 한국은 대미국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
 - 미국 GDP 중에서 소비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71%와 13%
 - 가계채무여건 개선과 자산순효과에 힘입어 민간소비여력이 확대되어 민간소비지출이 개선되면서 수입 수요가 증가
 - 기업의 재무여건이 개선되고 설비가동율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으로 향후 기업 투자 증가 전망
-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미국 경제 성장에 후행하면서 유사한 변동세를 보여 향후 미국 경제 회복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 기대
 - 미국의 경기 변동 1분기 후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미국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음
 - 한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0.68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

자료 : IMF, 한국무역협회.

- (우회 수출 경로)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
 -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르는 내수 확대로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경우, 한국은 중국 등의 제3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제3국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우회 수출 증가 예상
 -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ASEAN-5 등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최종재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
 -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세계로 수출하는 중간재¹⁾ 중 60.2%에 해당하는 1,754억 달러를 중국과 아시아개도국, 일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제권으로 수출
 - 특히 중국은 우리 수출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
 -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제1 수입 대상국으로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미국의 총수입액 2조 845억 달러 중 19.3%인 4,029억 달러
 - 또한 중국은 동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제1 수출 대상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는 한국의 총수출액 5,596억 달러 중 26.1%인 1,458억 달러
 -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통해 한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
 -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율은 2000년 이후 0.82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

< 한국의 대주요국 중간재 수출(2012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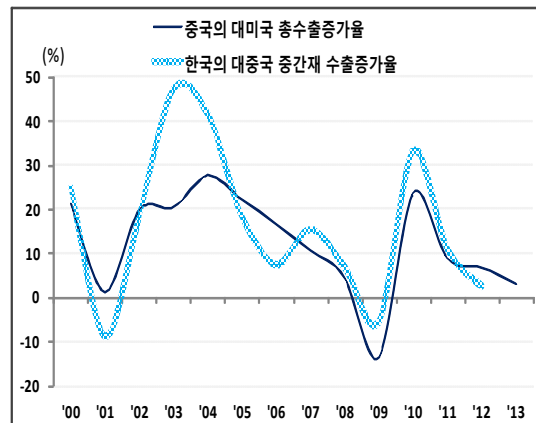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십억 달러, %)

수출 대상국	중간재 수출 규모	국가별 비중
세계	291.2	100.0
중국 ¹⁾	110.2	37.8
아시아 개도국	45.3	15.6
NAFTA ²⁾	34.2	11.7
유럽	30.4	10.4
일본	19.6	6.7
기타	51.5	17.8

자료 : UN Comtrade.

- 주 : 1) 중국에는 홍콩이 포함됨.
- 2) 미국과 캐나다, 멕시코가 포함됨.

< 중국의 대미국 총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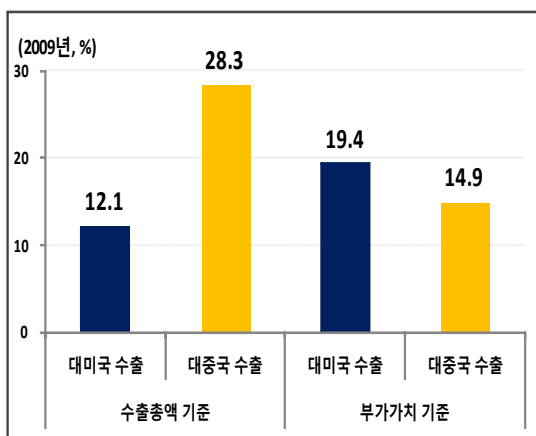
자료 : UN Comtrade, Bloomberg, 한국무역협회.

- 주 : 1) 중국에는 홍콩이 포함됨.
- 2) 2013년도 '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' 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음.

1) 중간재 품목 기준은 BEC 코드 상 121(음식료), 22(일반산업), 322(석유화학), 42(자동차를 제외한 자본재), 53(자동차) 분야의 중간재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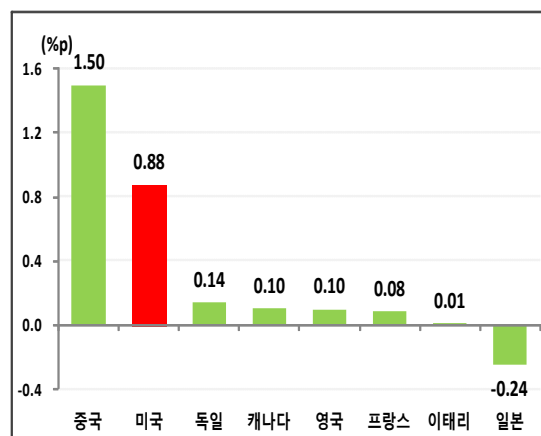
- 부가가치 기준으로 집계²⁾한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은 대중국 수출 비중보다 커, 한국의 수출 측면에서 중국 못지않게 미국의 중요성도 부각됨
 - 2009년도 수출총액 기준으로 측정한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은 12.1%로 대중국 수출 비중의 28.3%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
 - 그러나 우회 수출을 고려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측정하면,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은 19.4%로 대중국 수출 비중의 14.9%보다 큼
- (세계 경제 회복 경로) 세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 회복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회복을 견인
 -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미국 경기의 안정적인 회복은 세계 경기의 반등에 기여하여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 회복 기대 가능
 - IMF의 2013년 미국 GDP 추정치는 16조 7,243억 달러로 세계 GDP 추정치인 73조 4,545억 달러의 약 22.8%를 차지함
 - 최근 경제 회복기의 4년간 세계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주요국의 기여도 중에서 미국의 기여도는 0.88%p로 중국 다음으로 높음
 - 중국 경제가 이전과 같은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, 세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

< 집계방식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 비중 변화 >



자료 : OECD-WTO.
 주 : 비중은 한국의 총수출 대비 각국에 대한 수출 비중임.

<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요국의 기여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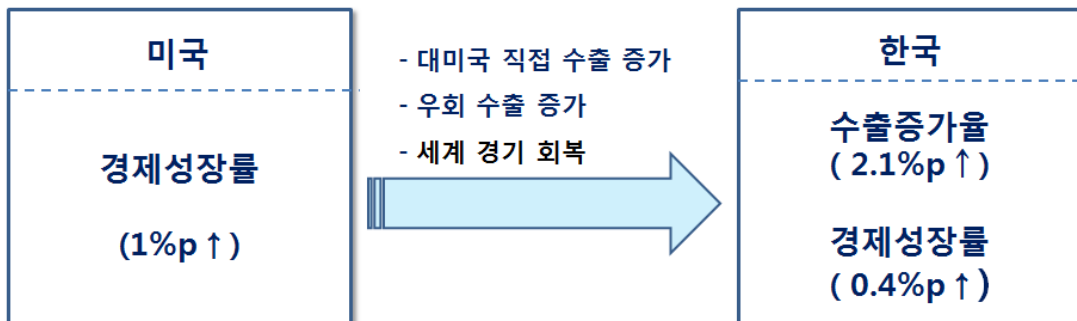
자료 : IMF 자료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 주 :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임.

2) OECD는 2013년 1월,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우회 수출하는 경로인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부가가치 창출 기준의 수출입 규모 자료(「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」)를 발간.

■ 파급 영향

- 미국의 경기 회복은 한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-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: 미국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수출증가율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회귀분석에 의하면,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%p 상승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은 2.1%p 상승
 - 한국 총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미국 경제성장률, 한국 및 일본의 실질실효환율, 일본의 실질실효환율, 중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, 국제유가 등을 고려
 - 여기서 '중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'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중에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(37.8%)이 큰 점과 중국의 대미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 높은 상관관계(0.82)를 고려하여, 우회 수출 경로의 대리 변수로 사용됨
 -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: 미국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회귀분석에 의하면,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%p 상승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.4%p 상승
 - 한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미국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실질실효환율,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, 중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 등을 고려

< 미국 경제성장률 1%p 상승시 한국 경제 파급 영향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3. 시사점

-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경우, 직·간접적인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
 - 첫째, 대미국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
 - 자동차,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 등 주요 품목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, 마케팅을 강화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
 - 정부는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, 기업은 미국 현지에 진출거점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
 -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따른 미국 산업의 부품, 소재, 기계 및 인프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
 - 둘째, 개도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유지하면서 소득 증가에 따르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 소비재 품목의 수출 경쟁력 제고
 - 대중국 수출의 핵심이 되는 고급 기술이나 소재가 내재화된 부품과 중간재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 필요
 - 대개도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과 유관 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개도국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
 - 특히 개도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류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필수재 위주의 소비에서 선택적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니즈 확대에 대응
 - 셋째, 향후 수출 경기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 수출 품목 발굴과 제품 차별화를 중점으로 국내 투자의 선제적 확대
 - 글로벌 선진업체와의 경쟁과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혁신 및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투자 확대
 - 유망 제품의 선제적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모델 다양화 및 제품 차별화로 수출 품목 확대
 - 넷째, 엔저 지속 및 원화 강세 등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
 - 엔화 약세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
 -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기업 지원 대책 및 무역 보험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 시급 **HRI**

홍준표 연구위원 (2072-6214, jphong@hri.co.kr)

[별첨]. 미국 경기 회복이 한국 수출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

- 현대경제연구원은 <식 1>과 <식 2>의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

- <식 1> $EXPT^{KR}_t = a + \beta_1 \cdot GDP^{US}_{t-1} + \beta_2 \cdot REER^{KR}_{t-1} + \beta_3 \cdot REER^{JP}_{t-1} + \beta_4 \cdot EXPTR^{CN \rightarrow US}_t + \beta_5 \cdot OILPR^{DUBAI}_{t-1}$

- <식 2> $GDP^{KR}_t = \gamma + \zeta_1 \cdot GDP^{US}_{t-1} + \zeta_2 \cdot REER^{KR}_{t-1} + \zeta_3 \cdot EXPTR^{KR \rightarrow US}_t + \zeta_4 \cdot EXPTR^{CN \rightarrow US}_t$

- 변수 명칭은,

$EXPT^{KR}_t$: t기의 한국 실질총수출액 증가율(전년동분기대비)

GDP^{KR}_t : t기의 한국 실질GDP 증가율(전년동분기대비)

GDP^{US}_{t-1} : t-1기의 미국 실질GDP 증가율(전년동분기대비)

$REER^{KR}_{t-1}$: t-1기의 한국 실질실효환율

$REER^{JP}_{t-1}$: t-1기의 일본 실질실효환율

$EXPTR^{KR \rightarrow US}_t$: t기의 한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국 수출액 비중

$EXPTR^{CN \rightarrow US}_t$: t기의 중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국 수출액 비중

$OILPR^{DUBAI}_{t-1}$: t-1기의 두바이 실질유가 증가율(전년동분기대비)

- 우회 수출 증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중에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(37.8%)이 큰 점과 중국의 대미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 높은 상관관계(0.82)를 고려하여, '중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($EXPTR^{CN \rightarrow US}$)'을 우회 수출 경로의 대리 변수로 사용함
-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세계경제성장률이 고려되었지만, 회귀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 문제의 제약으로 인해 설명변수에서는 제외하였음
- 일본의 실질실효환율($REER^{JP}$)은 한국 수출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어 <식 1>에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지만, 경제성장률에는 한국의 수출을 거쳐 단계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보아 <식 2>에서는 제외되었음
- 두바이 유가($OILPR^{DUBAI}$)는 한국 원유 수입 중에서 80%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원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<식 1>에 포함되었음
- 분석기간은 2000년 1/4분기부터 2013년 2/4분기까지임
- 분석 결과, 미국 경제성장률이 1%p 상승하면 한국 총수출 증가율은 2.1%p 상승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0.4%p 상승
-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한국 총수출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변동은 각각 99% 및 95%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함